

노인일자리 참여자와 소통 나서 임실군, 채용박람회 성황리 마쳐

최영일 순창군수, 미래 비전 제시... 내달 28일까지 참여자 2819명 대상 간담회 실시

순창군이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꾸준한 행보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가 지난 25일 노인회관 3층 강당에서 열린 유등면 참여자 대상 간담회에 참석, 바쁜 일정을 쪼개 노인일자리 참여자들과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비전과 중요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군은 지난 24일 인계면을 시작으로 다음 달 28일까지 약 한 달간 노인일자리 참여자 2,819명을 대상으로 소통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순창시니어클럽(관장 이효)이 주관하는 이번 간담회는 읍·면별, 사업별로 총 16회에 걸쳐 진행되며 그동안 노인일자리 참여하며 느꼈던 애로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가감없이 얘기하는 소통의 자리로 지역 사회의 노인 복지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반영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최영일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사회 참여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라며 "단순한 용돈 마련 수단을 넘어서 어르신들의 정서적 지원과 돌봄 기능으



최영일 순창군수가 지난 25일 노인회관 3층 강당에서 열린 유등면 참여자 대상 간담회에 참석해 노인일자리 참여자들과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로 지역 사회의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최 군수는 "앞으로 자원순환단, 시가지형 사업단 등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평생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어르신들이 더욱 활기차고 보람 있는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순창군의 노인 복지 정책은 이

미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순창시니어클럽은 개소 1년 만에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상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냈다.

이는 순창군의 노인 복지 정책이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결과로, 앞으로의 노인 복지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간절히 염원합니다”

남원시 이통장연합회, 뜻 모아

남원시는 시 이통장연합회(회장 모춘재)가 26일 가진 정기총회에서 제2중앙경찰학교(이하 학교) 남원시 유치를 간절히 염원하였다고 전했다.

남원시민들은 한마음으로 유치를 염원하고 있으며, 학교가 남원에 유치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은 물론, 상업과 주거 환경 개선 등 지역 발전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촉구하며, 유치 활동에 협력할 뜻을 밝혔다.



남원시는 쾌적한 자연환경, 풍부한 관광자원, 복잡하지 않은 생활환경과 KTX(전라선, 달빛내륙철도)와 고속도로(순천완주·광주대구)가 지나고 있어 교통이 원활하고 수도권 대비 저렴한 물가 등 환경, 교육, 여가 등 모든 분야에서 학교 입교생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선호하는 최상의 정주 여건을

갖추고 있음을 선정위원회에서 알기를 희망하며, 이통장들은 반드시 남원에 건립되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특히, 남원시에 학교 부지로 내정된 운봉지역은 역사·문화적으로는 「정감록」에서 제시한 심산지 중 하나로, 예로부터 자연경관과 거주환경이 뛰어난 장소로 전성, 재해, 질병 시 안전한 피난처 역할을 하는 곳이다.

또한, 고려말 이성계 장군이 왜구를 상대로 대승한 환산대첩비가 있는 곳으로 경찰의 기상을 드높일 수 있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이다.

남원시, 여수서 사회복지사 힐링캠프 가져

남원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 사회복지사 지원을 위해 26일 여수에서 힐링캠프를 가졌다.

대상은 사회복지사 40명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지원과 사

기 진작을 위해 놀이와 문화 체험을 희망하는 복지사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캠프에서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루지 라이딩 및 쥘리인 등 다이나믹한 체험활동과 아르떼뮤지엄 지역문화



관람 등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복지종사자간의 여가와 소통, 힐링 시간을 가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관내 7개 기업체 참여... 250여명 구직자 방문 25명 현장 채용

임실군이 지난 25일 임실읍사무소 1층 북카페 및 광장에서 7개 기업체와 250여 명의 구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임실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도농 상생협력사업으로 추진된 이날 채용박람회는 고용노동부, 전북자치도, 임실군이 주최하고,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 임실군로컬JOB센터가 주관했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일(JOB)이 오너라'란 주제로 관내 고용시장의 활성화와 구인·구직 난 해소를 위해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주)한한(주), 내래식품(주), (주)신성기업, 농업회사법인 울치(주), 사조오양 임실공장, 관촌 원광수양원, 농업회사법인 맛누리(주) 등 임실군을 대표하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에서 채용 상담관을 배치해 1:1 현장 면접을 진행했다.

기업별 채용 정보 확인 및 현장 이력서 작성을 통한 면접 기회 제공으로 일자리가 필요한 구직자에게는 취업 기회 및 다양한 구직정보를 제공받게 돼 맞춤형 취업을 선택할 수 있었다.

또한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는 인력난 해소와 우수한 지역 인재를 선발하는 상생의 계기가 마련됐다.

박람회에서는 전주기전대학, 국민취



업지원제도,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 취업지원센터 등 4개의 관계기관이 참여해 기관별 일자리 지원사업을 홍보했다.

또한 부대행사로 K-테크 하이 플랫폼(VR), 지문적성검사, 인생네트, 면접메이킹업과 이력서 컨설팅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받았다.

이날 박람회에는 약 250명의 구직자가 방문했고, 7개의 업체에서 면접을 통해 25명이 현장 채용됐다. 또한 추후 통보 및 2차 면접 예정자를 포함하면 채용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심민 군수는 행사장을 돌며 구인 기업과 구직자들을 일일이 격려하면서 "이번 박람회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활성화와 구인·구직 난 해소에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유관기관과 협력 추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충영 기자



공익장 황의중, 효열장 김향자, 애항장 최희영, 산업근로장 오기택

남원 향교동민의 장 수상자 4명 선정

남원시 향교동민은 오는 28일 10시부터 제2회 향교동민의 날 행사를 교동초에서 개최해 동민의 장 4개 부문 선정자에 대해 수상할 계획이다.

남원시 향교동(동장 권혜정)과 향교동발원협의회(회장 변재명)는 동민의 장 4개 부문에 공익장 황의중(60), 효열장 김향자(64), 애항장 최희영(57), 산업근로장 오기택(65)을 선정했다.

공익장 황의중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2년간 향교동장으로 근무, 뜨거운 열정과 추진력으로 향교동 발전과 동민 화합을 이루는데 이바지하였으며, 효열장 김향자씨는 남편과 사별 후 고향인 재실마을에 내려와 2017년부터 올해로 100세 되신 외할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며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애항장 최희영씨는 울치마을이 고향으로 현재 장성에서 (주)대주축산을 경영하면서 남다른 애항심으로 고향사랑기부금 5백만원을 기탁하는 등 향교동 각종 행사도 후원하고, 산업근로장 오기택씨는 젊은 시절 고향을 떠나 수성기하여 현재 서울 소재 논현산업(주)의 여러 개의 회사 대표로서 경영에 충실하고 있어 동민들의 자긍심을 심어 주고 있으며, 특히 이번 동민의 날에 맞이하여 기부금과 물품을 후원하는 등 성공적인 행사에 도움을 주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맞춤형 교육

순창군이 AI·IoT(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ICT(정보통신기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보건의료원 3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사업 대상자 중 15명의 어르신이 참여했으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태블릿 소속 강사 2명이 교육을 진행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교육은 스마트폰 기본 활용법과 실습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폰 기본 사용법, 앱 설치 및 삭제, 카카오톡 사용법, 사진 촬영 및 관리, YouTube 사용법 등이다.

특히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 필수적인 '오늘건강' 앱 로그인 방법과 스마트 기기 연계 방법에 대한 상세한 교육이 이뤄져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농기센터, 딸기 스마트팜 농가 맞춤형 컨설팅 실시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는 2024년도 남원명품농업대학 딸기스마트팜반 35명을 대상으로, 지난 25일 스마트팜 기술 현장 적용을 돕기 위한 농가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교육생 딸기 재배 농가를 방문, 스마트팜 기술 도입 및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스마트팜 시스템의 운영 방법, 자동화된 환경 관리 기술, 데이터 기반의 생산성 향상 방안 등 딸기 재배에 필요한 최신 농업 기술에 주된 내용으로 다루어졌다.

학생들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스마트팜 기술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배우고, 실제 농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희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기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 꾸민다.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처: 문화재청 제공)